



2012 ISSUE PAPER

여성노인의 안전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수행과제명 |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방안(Ⅳ):
여성노인의 안전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과제책임자 | 장미혜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여성노인의 안전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수행과제명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방안(Ⅳ):
여성노인의 안전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과제책임자  장 미 혜 연구위원
 Tel: 02-3156-7133
 e-mail: mhchang@kwdimail.re.kr

요약

여성노인의 심리적·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안전을 비롯하여 공간에서 직면하는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남녀 노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여성노인 안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도 실시하였음.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노인 안전에 관한 기존 정책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음.

1 배경 및 문제점

- 한국의 여성노인은 평균수명이 남성에 비해서 길기 때문에 혼자서 남은 생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제적으로도 남성노인에 비해

훨씬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 손자녀 돌봄이나 가사노동 등 돌봄의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자녀들에게서 노후에 돌봄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의 여성노인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노인의 심리적·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안전을 비롯하여 공간에서 직면하는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의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노인집단내의 남녀별 격차를 규명하고, 노인인구 내 존재하는 연령, 건강상태와 의존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분화된 집단별로 당면하고 있는 안전실태와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결과

1) 여성노인의 안전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 여성노인의 심리적/사회적 안전

- 여성노인의 20.84%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성노인의 경우 1인 가구의 비중이 14.7%에 불과했지만 여성은 40.42%에 달했음. 배우자 없이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남성노인은 6.7%에 불과했지만 여성노인은 21.9%였음. 1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간병이나 수발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남성노인의 70.9%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노인은 26.1%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남성노인의 30.3%가 여성노인의 41.9%가 ‘세상에 홀로인 것 같아 외롭다’고 호소하고 있었음.

■ 여성노인의 신체적 안전

-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높지만, 간병 및 수발은 노년후기에만 남성노인에 비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

음. 학대경험은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노인의 학대경험이 남성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리고 여성노인들은 모든 연령대에서 컴퓨터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었음.

■ 여성노인의 경제적 안전

- 생활비를 얻는 주된 방법을 보면 남성노인의 42.7%, 여성노인의 63.7%가 자식 및 친척에게서 받는 생활비와 용돈이라고 응답하였음. 여성노인은 재산처분권한도 남성노인에 비해 부족한 편이었음. 경로연금제도에 대해 30% 이상의 노인들이 인지하고 있었고, 일자리 정책은 70% 이상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 여성노인의 공간적 안전

- 남성노인들은 주택담보모기지론에 대한 필요성(65.28%)을 여성노인(61.0%)에 비해서 더 느끼고 있지만, 여성노인들은 임대주택이나 주거비보조를 더욱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생애주기별 정책 수요조사에서는 건강상태나 활동력에 따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줌. 노년후기가 되더라도 평상시에는 대다수의 노인(87.09%)이 현재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바라고 있었음.

2) 노인안전 실태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분석결과

■ 여성노인의 심리적/사회적 안전

- 노년기에도 가족 돌봄과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여성들은 손주를 돌봐주는 일을 힘들게 받아들였음. 대부분은 자녀와 함께 살거나 의존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였는데, 가족은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음. 여가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이 노인에게 주는 의미와 만족감은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 경제적인 이유나, 건강문제, 시간문제 등으로 제한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음.

■ 여성노인의 신체적 안전

-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 노인성 질환 등을 겪고 있었음. 신체적인 제약은 경제활동에의 장애가 되고, 병원비 부담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며, 사회활동을 제한하여 심리적 고립감으로 이어지기도 함. 또한 질병과 신체기능 저하에 대해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특히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에 불안감과 두려움이 더 두드러졌음.

■ 여성노인의 경제적 안전

- 현 세대 노인들은 노후를 준비해 오지 않은 세대로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특히 주로 가정에서 주부로서 살아온 여성노인이 이러한 위험에 더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었음. 노인들은 일을 함으로써 만족감과 삶의 활력소를 얻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나가고 있었음. 하지만 노인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노인의 노동은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가 적은 경우가 많았음.

■ 여성노인의 공간적 안전

- 여성노인들은 안락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에 대한 욕구가 컸음. 경제적인 이유로 좋지 않은 주거 공간에 세를 들어 사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서러움이 더해져 심적으로 힘들게 느끼고 있었음. 거주지역의 교통이나 시설이용의 편의성에는 크게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음. 여성노인들의 경우에는 거주지역의 안전에 대한 염려와 관심이 많았음.

3 정책제언

제안1) 지역노인주거 지원센터 설치

■ 정책의 목적과 필요성

-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거동이 힘들거나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노년후기에 가사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혼합되어 제공되는 형태의 주거시설이 필요함. 특히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늘어나면서 가족에 의해 전담되던 노인수발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고, 부모봉양을 의무로 생각하던 전통적인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독거노인의 돌봄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

■ 정책의 추진방안

- 지역별로 설치된 노인주거지원센터에서는 세탁, 장보기, 청소, 의료, 응급호출, 운송, 제설 등 혼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필요로 하는 가사서비스를 도와주는 인력과 연결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노인주택공급시 간호와 돌봄서비스까지 제공되는 노인주택은 보급노인의 “주거+복지+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여성노인친화형 주거개조를 지원하도록 함.

■ 정책효과

- 나이가 들면서 많은 노인들이 체력이 감소하고, 동작이 둔해지면서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좀 더 적은 힘을 사용해도 이동할 수 있는 노인편의 시설이 갖추어진 주택을 원하게 되므로, 이에 맞게 주택을

개조하는 것을 지원해주면 타인의 도움이 없이도 노후에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함.

- 노화에 따라 이동성(mobility)이 줄어들면서 건강이 쇠약해지고 질병이 보다 빈번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집으로부터 의료시설이나 다른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데 있어 중요함.
-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장성한 자녀가 분가하고, 노부부 역시 배우자의 사별이나 이혼 등을 경험하면서 많은 노인가구는 1인 가구, 즉 독거노인이 됨. 가구원수의 감소로 인해 자녀가 사용하였던 방과 같이 종전에 사용되던 공간이 불필요해지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공간이 크다고 느끼게 됨. 이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보다 작은 면적의 주택으로의 이동을 모색하게 되므로 이들의 수요에 맞는 주택의 개조지원이 필요함.

제안2) 노노(老老)케어 사업

■ 정책의 목적과 필요성

- 노노케어 사업을 통해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과 노인 일자리 제공이 같은 지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함.

■ 정책의 추진방안

- 해당 사업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단기 사업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노인봉사단 사업과 같이 지속적이며 안정적 체제를 구축해하는 것이 사업성패의 관건이 됨.
- 노노케어 서비스 제공자를 선발하면,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도 필요함. 해당 사업의 관리자는 직무 교육과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직업기술 개발을 도와야 함.

■ 정책효과

- 자유로운 시간이 늘어난 노년기에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고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노년기의 주요한 과업임. 노인의 풍부한 사회적 경험은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는 노인돌봄 서비스에만 작업이 한정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지역사회 아동돌봄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관계부처 :